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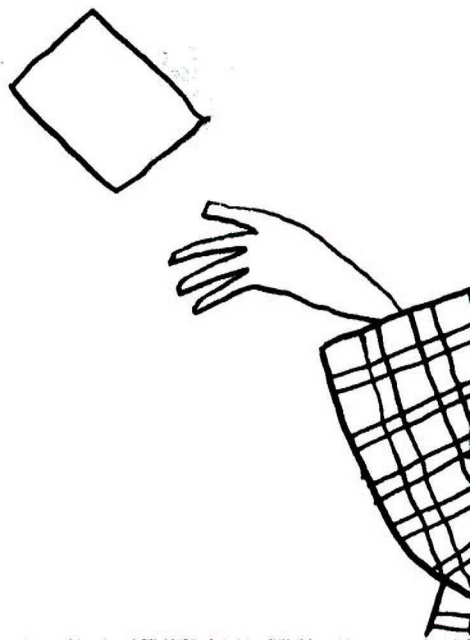
# 겨울

1976년 11월 4일. 모진 겨울바람이 싫어서  
 하얀 눈이 펄펄 내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도시의 비탈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퇴근길에는 이즈러진 돌계단을 밟아오르며  
 이런저런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 봅니다. 계단  
 중간쯤에서 가쁜 숨을 돌리기 위하여 멈추어 선 저는  
 도시의 찬란한 불빛을 내려보며 버릇처럼 한숨을  
 내쉬기도 하였습니다.

“저 수 많은 불빛중에 진정 내가 밝힐 불빛은



강 경 덕  
 <서울 성북구 석관1동  
 123-11호>



# 바람

언제쯤이나 있을까”

집없는 외로움. 그것은 고독이었습니다. 한자루의 촛불을 밝힐만한 집을 마련하겠다는 푸른 꿈은 차가운 바람에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낡은 대문을 밀치고 내 황량한 자취방으로 들어섰을 때, 방바닥에는 한통의 전보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흔히 그렇듯 「전보요!」하고 우체부가 외치게 되면 무슨 사고가 있나하는 걱정으로 가슴뛰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생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집어 펼친 뒤 한번 크게 호흡을 하고는 그 속에 적힌 내용으로 눈을 가져갔습니다.

“명훈위독. 급히오라.”

저는 한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손끝이 마구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빈혈과도 같은 현기증이라고 해야 옳을지 모릅니다. 저는 황급히 방을 나와서 두방망이질 하는 가슴을 부여안고 서울역에 나가 밤열차를 탔습니다. 우리 명훈이가 어떻게 해서 위독이란 말인가... 위독이라면 죽음에 가까운 예고일진데 그럼 죽음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던 말인가. 아니야 분명 명훈이의 장난일거야. 이 누나가 보고 싶어서 전보를 친 장난. 저는 차창밖에 얼굴을 돌리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명훈이의 장난으로 단정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행여 가없는 명훈이 앞에 위독, 죽음 그런 것이 그애의 운명 안에 있다면 오! 주여 그것은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 남매의 유년시절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바람에 날리는 거와 같이 하루아침에 산산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대전에서 운수업을 하시던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를 하시자 어머니는 제가 열두살 때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업실패와 어머니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으신 아버지께서는 방황의 나날을 헤메시다 마침내는 어린 우리 남매를 세상에 버려두시고 매정하게도 어머니의 곁으로 가셨습니다. 울어도 울어도 가슴이 트이지 않는 울음을 저는 몸부림치며 울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과 뼈와 피를 섞은 혈육이라고는 오직 명훈이와 저 뿐이었습니다. 우리 남매는 밤이면 부모없는 서러움에 베갯잇을 적시며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한 슬픔속에 명훈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전 행동 외삼촌댁에서 서점일을 돌보며 서울에서 타자기를 두들기고 있는 누나인 저에게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남매가 되자고 예쁜 꽃봉투에 편지를 띄워주는 착한 동생이었습니다.

대전에 도착한 저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아 전신주를 쓸어안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지난 밤 화재로 불타버린 건물들이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 동생 명훈이는 타오르는 불길에 휘감겨 이층에서 뛰어내렸지만 뇌를 크게 다쳐 대전병원에서 손도 쓰지 못하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외숙모님의 품속에 묻혀 서울로 올라오는 택시속에서 그 순간만큼 하느님을 애타게 찾으며 간곡한 기도를 드린 적은 제 생애에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는 머리를 온통 붕대로 감은 명훈이가 너무나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에 파도처럼 일어나는 눈물을 씻을 생각도 잊은 채 멀거니 하얀 명훈이의 얼굴에 시선을 꽂고는 그 잠든 손을 두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놓아버리면 금방이라도 날아가버릴 것만 같은 불안에서 내 손은 나도 모르게 힘이 주어졌습니다.

명훈아, 가엾은 명훈아 죽으면 안돼. 넌 살아야 돼. 무수히도 되뇌이는 저의 소리는 제 가슴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사람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갖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된다면 것처럼 가혹하고 무서운 시련을 감당하기엔 저는 너무나 연약해 있었습니다. 영혼의 아픔도 참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바로 외부로 들어난 것이어서 앓는 당사자의 고통은 물론이고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의 고통까지를 수반하게 되므로 더욱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명훈이의 입술이 일그러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누나라고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은 해맑은 미소를 보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가 봅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그 운명.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도착하기 한 시간 전에 내 사랑하는 명훈이는 이미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동생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통곡하였습니다. 명훈이의 붕대감긴 뺨을 감싸쥐고 마구 흔들어도 그는 끝내 눈 한 번 떠주지 않았습니다. 명훈이는 하늘나라의 엄마별 아빠별 사이에 작은 별이 되기 위하여 스물 한살의 꽃다운 나이로 겨울 밤 불길속에 허둥이다가 떠나갔습니다.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로 화한 동생의 유골함을 받아들이고 저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뼈가루를 강물에 뿌리며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는 멍한 상태로 겨울 강바람에 제 동생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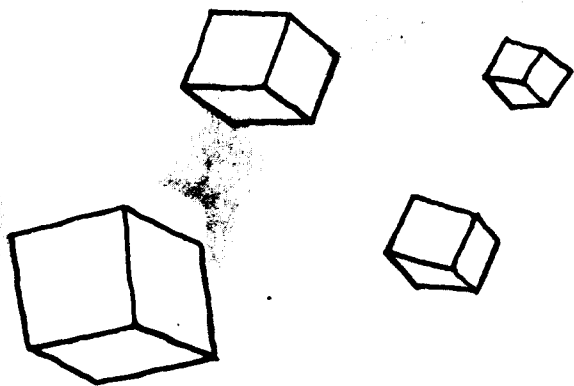
죽음. 정말 저도 죽고 싶었습니다.

죽자. 어떻게 죽어야 할까. 어떻게 죽어야 내 죽은 모양새가 추하게 보이지 않을까. 명훈이를 보낸지 보름만에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산다는 것이 마음을 아프게 찢러



대더군요. 거울속에 살아있는 제가 미우면서도 어떻게 죽어야 할까를 궁리한다는 것이 아직은 죽을 마음이 없었나 봅니다.

봄이 되면 언 땅이 풀리고 양지바른 자리에 파란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땅에서 새 생명이 돋아나기 시작하듯이 저의 메마른 작은 가슴속에도 새로움이 돋고, 나비들이 날아들며 잃었던 미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실로 많은 분들이 포근히 저를 감싸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하느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음이란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것. 만일 그때 죽음을 택했다면 이 세상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셈이겠지요. 내 생명이 정지되었다면 그 순간 우주도 사라지고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모든 것에 앞서서 가장 소중한 까닭은 곧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무관심과 잠깐의 방심으로도 엄청난 슬픔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은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뼈아픈 비극을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나만은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누군가 장담할 사람이 있다면 저는 한송이 백화(百花)를 우울한 빛으로



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밤 사이에 천금을 준다해도 바꿀 수 없는 어린 자식을 불기동속에 잠겨놓고 발버둥을 치며 통곡하는 아버지의 울음을 들었습니다.

드높은 빌딩이 하루아침에 밤하늘을 불사르고 도시의 복판에 괴물처럼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아린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나에게만은 그러한 참극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긴긴 겨울밤 다리밑에 거지부자의 대화속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겠지요.

저는 지금도 불자동차의 요란한 싸이렌소리가 아련히 들려오면 겨울강에 뿌려진 내 사랑하는 명훈이의 모습이 떠오르고 지나가는 엠블란스의 급박한 소리만 들려와도 가슴은 풀무처럼 뿔뿔을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슬픔을 잊혀줄 기쁨도 다가오기 마련인가 봅니다. 제 남편이 근면 성실하게 그리고 사회를 바르게 보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에서 제 외로운 마음은 편안해 집니다. 얼마전 6·25를 배경으로 한 미술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아와 안겨주며 제 앞가슴을 파헤치고 들어오는 개구장이 아들녀석의 손이 여간 사랑스럽지 않았습니디. 녀석의 앨범엔

유치원시절에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 몇점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불자동차와 용감한 소방관 아저씨를 담은 그림은 제 마음을 울적하게 만들지만 실은 잊혀지려는 저의 방심을 일깨워 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아예 저의 서투른 솜씨로 판넬을 하여 주방에 걸어두고 있습니다.

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아니될 빛이며 에너지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불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지구는 그만 정지되어 버릴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불은 우리에게 소중한므로 늘 고마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은 우리의 재산과 귀중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무서움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 작은 행복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불을 가까이하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깊은 관심을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 머리속에는 “불은 날 수 없는 곳도 없고, 날 수 있는 곳도 없다”는 정신으로 전기누전, 아빠의 담뱃불, 다림질 후의 뜨거운 다리미, 가스렌지의 연소장치, 정전으로 인하여 밝힌 촛불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예방에 잠시라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겨울이 문턱에 다가오는 계절에는 특히 불조심에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석유곤로와 난로의 취급부주의로 일어나는 화재가 부쩍 늘어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껏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게 하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요번 달에는 꼭 소화기를 장만해 놓겠다고 다짐을 하면서도 막상 건네받은 월급봉투를 손에 들었을 때에는 그 다짐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것저것 갈라 쓰기에 바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87년 9월)부터 장기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매달 은행 지로창구를 찾을 때는 저만이 알고 있는 기쁨도 있습니다. 3년만기라서 앞으로 2년을 더 부어나가야 하지만 이 보험이 끝나면 마음이 허전할 것 같아 다시 계약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결을 급습할 불행이 닥쳐도 좌절의 늪에서 한가닥 헤어날 길은 곧 보험시대에 발맞추어 나가야한다는 마음에서입니다.

하나의 작은 불씨가 평온한 가정을 태웁니다. 불은 날 수 없는 곳도 없고 날 수 있는 곳도 없다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